

土種 홍화씨
興國農産
◎ 전 국 (060)064-1300
◎ 서울본부 (060)070-1300

● 지리산지역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계 특내
● 맛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관음보살님 왜 호미드셨나요”

경남진영 봉화산 정토원 '호미든 불상' 새로 모신다

40년전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 31명
불교사회운동·농촌계몽발원 조성

호미 갈라지고 몸체 얼룩져 다시 세워
10월 30일 점안식갓고 10만불자 정토결사

영남의 젓줄, 낙동강이 휘돌아가는 3개시 13개 읍면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경남 진영군 한림면 봉화산. 시계가 탁트인 정상에 세계유일의 호미든 관음성상이 우뚝 서 있다. 단 3.5m, 보살상 8.5m, 총 10m 높이로 자재로운 미소를 띤 관세음보살이 한손엔 호미를, 한손엔 버드나무가지가 들어있는 갈로수병을 들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봉화산 부처님을 향해 합장인사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관례가 되고 있는 이 관음성상은 40년만인 지난 14일 새로 조성되어 모셔졌다.

40년전인 1959년 4월 5일, 6·25 전쟁 후 암울했던 사회체제와 비구·대처사상으로 불교분규가 극에 달했던 당시, 선진규(봉화산 정토원 원장) 김지건(前 정선문화연구원교수) 이봉규(사업가) 이종복(前 정광교 교장) 김영대(동국대 명예교수) 김인덕(동국대교수) 박완일(前 전국신도회장) 박동기(前 동국대교수) 김두성(정광교교장)씨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생과 재학생을 주축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불자 31명은 불교혁신을 부르짖으며 호미든 관세음보살님을 산 정상에 모셨다.

왜 호미를 들었을까?
당시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국민 대다수가 굶주렸다. 동란후 남북의 냉전이 심각하던 때라 통일 가능성은 멀어지고 있었다. 부정부패가 극심했고 우리민족의 삼의 태였던 농촌의 농민들은 남부어대해 도시로 도시로 몰려드는 등 사회가 어수선했다. 정치·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서가 극도로 불안해진 국민들을 위해 불상은 3년

년 역사 생존도구의 상징인 호미를 든 것이다. 젊은 불자들이 농촌계몽운동을 하며 모신 '호미든 관음개발상'에는 심신, 사회, 사상, 경제 개발이라는 4대 정신사업이 담겨있다. 호미는 잡초를 뽑고 씨앗을 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희망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민족정신의 개조와 개혁의 의미를 상징한다.

선진규원장은 "1959년 4월 5일 가진 불보살에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인파인 지역주민 5천여명이 참여해 실천사업으로 민중사업이었던 봉화산일대에 소나무 5만그루를 심는 등 희망의 식수를 하여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라고 회고한다.

40년동안 봉화산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나라의 변화는 눈부셨다. 4.19를 비롯해 격변하는 역사를 관음성상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봉화산 정토원은 교계최초로 1983년 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을 건립했으며 1991년 건립 3백35명 3층규모의 현대식 수련원을 완공하여 지역청소년들의 요람지로 매년 1만여명이 이용하고

■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원장

“통일-불교혁신 염원 담았어요”



“40년전 호미든 불상이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발원위에 세워졌다면 이번에도 남북통일과 불교발전, 민족화합을 이 시대의 열망을 담고 봉안됐습니다.” 관세음보살은 32의상과 천수천안을 가지고 있는데 호미든 모습은 시방세계에 구현하는 모습중 첫 시도일 뿐이라고 말하는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40년간 불교청년운동과 농촌활성화를 통해 불교의 잠재력을 키워온 인물.

원장은 “불교도 변화를 꾀야 합니다. 벤처기업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행방식들을 응용해야지요”라며 포용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선진규원장은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생활불교운동을 펼쳤다. 부인 김기업(66·전 보건복지부 가정보건국장)씨와 인근 신림리에서 야간학교를 하던 선진규원장은 봉화산에 부지를 확보하고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의 청소년수련원 정토원을 완성했다.

있다.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한문서당이 개설돼 매년 6백여명이 이수하며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 명사초청 교양강좌등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쳐지고 있다.

경제개발의 서wind 성취를 했다. 보고계를 걱정하던 한국인들은 90년대 들어 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이웃 불교국가와 교류된 북한동포도 돕고 최근에는 IMF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1959년 당시 어려웠던 경제상황의 탓으로 인조석으로 만든 관음상은 어느덧 40년을 지내는 동안 호미는 갈라졌고 몸체는 구식구식 얼룩이 지고 파들이 되어가 불상은 봉화산 정상에서 내려와 108 참회계단 입구에 세워졌고 14일 새로 제작된 불상이 모셔진 것이다.

때마침 불교계에는 도시와 농촌이 손을 맞잡고 상생(相生)의 정도를 가꾸어나가는 '인드라마 생명공동체'가 11일 창립. 현대사회의 생명위기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가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웃과 나누는 대승적 실천행운등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호미든 관음성상 불상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물질문

- 정토원**
- 소나무 5만그루 식수
 - 청소년 수련원 개원
 - 지역주민 교양강좌
 - 21세기 준비 정진도량

명여 경도된 타락한 정신, 탐욕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뽑아버리고 인성, 화합, 자비를 심고 남북통일을 이루어내며, 나아가 정신문화운동을 열매맺기를 발원하며 21세기를 향해 관세음보살님을 다시한번 힘차게 호미를 잡은 것이다.

축공불감을 넣어 만든 불상의 백축에는 남북통일축성취 기원 정토결사 전법도량 불교중흥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

새로 조성된 호미든 관음상의 정안식과 이를 축하하는 부대행사가 오는 10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열린다.

30일 오전 11시에는 점안식을, 오후 2시에는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불보살을 봉행한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전국신도회 10만불자 정토결사정진대회도 갖는다. 정진대회에는 정토운동결사 대표토론회를 가진 뒤 전국신도회법회 입장을 확정하게 된다.

31일 11시에는 지역불자들과 함께 정진대회를 회향하고 오후 2시부터는 제 11회 청소년 축제가 열린다. 참가청소년들은 기원문을 작성하여 호미든 관음성상에 봉안하게 된다.

한손에는 자비의 상징인 버드나무가지가 꽃힌 갈로수병을, 한손에는 심신·사회개혁의 상징인 호미를 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들에게 다시한번 정신문화개혁을 하도록 요구하며 새롭게 서 있다. 한국불교의 변화를 촉구하며...

김원우 기자(wkim@buddhapia.com)



▷진리추구 통일기원 경제발전 등의 염원을 담은 호미든 관세음보살님이 봉화산 정상에 다시 봉안됐다. 3.5m의 단위에 우뚝선 6.5m의 관음성상은 한손엔 호미, 한손엔 버드나무가지가 꽃힌 갈로수병을 들고 중생계를 비리보고 있다.



▷봉화산 정토원 법당은 무량수무량광아미타 정토도량이다.



▷봉화산 한문서당에서 안성교육의 일환으로 참선수련을 지도받고 있는 청소년들.



▷토우에서 볼수있는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인 이천소고리 마애삼존불 본존불.

마애불을 찾아서

이천 소고리 마애삼존불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 '특징' 고려중기 제작...향토유적 지정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소재한 이 삼존불은 남서쪽을 향한 편향된 자연석 면에 돌출해있고 조각되었다. 이 석불은 신라시대의 토우나 미개종족의 신앙에서 볼 수 있는 회화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특징이다. 바위면 상단에는 인호의 대수구가 파련되어 있고 하부에는 본존에만 연화화대가 있으나 지금은 배물되어 있는 상태다. 중앙의 본존(203cm)은 굽은 선으로 두팔이 있고 머리에는 관모형의 소발이 있으나 보관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얼굴은 긴 편으로 이목구비가 도사화되어 있고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가슴에 대칭형 사선을 그려 법외의 의문을 나타냈다. 양손 손가락을 벌려 손바닥을 내향(內向)해서 가슴에 대었고 하단에는 결가부좌한 오른쪽 발바닥만이 외향하고 있다. 키 60cm의 좌할시보살 역시 굽은 선의 두팔이 있고 머리는 뿔머리인듯 하며 양손을 가슴에 마주 모으고 있다. 키 93cm의 우할시보살은 머리에 높직한 관모와 삼도가 있으며 양손을 가슴앞에서 합장하고 무릎 가운데 발바닥이 표시되어 있다. 조성연대는 고려중기 이후로 추정되며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됐다. 글·사진=불자포교사건연협회 제공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99.9%)카드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釋尊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송에서 증명된 것과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생시켜 수맥을 차단하는 등 진리와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역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행운의 '순금카드'에 새겨서 상용화(실용신안등록 No.02668)했다. 정만복자 특별 보시 보급용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의 앞면에 달마도의 대가 격인 원종유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로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막코팅함으로써 벗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람이나 불자들이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 할인은 물론 앞뒷면이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를 부적, 이음 등 어떠한 문안이든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형 3구에서 특별 보시 가격으로 3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파추진 경수후 경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택달 가능하며 최고의 전신 달마도를 고급 포우역제(27cm×32cm)와한 액자 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대형 원종유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열쇠고리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세트) : 2만원에 판매

※용사들께서는 다름니다.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처 한국 지.엔.씨 (24시간, 공휴일, 경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호미든 불상' 다시 제작한 박일현씨

“40년만에 다시 인연 감개무량”



“젊은시절에 첫 조성하고 40년만에 다시 조성하는 인연을 만나니 감개무량합니다” 호미든 불상의 불모 박일현(예원인테리어 대표)씨는 어느덧 머리카락이 희끗거리며 62세가 됐다. 불상을 처음 조성할 당시 나이 21세, 흥인대 조소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유래가 없는 호미든 관음성상을 처음 제작하기 위해 석고로 조형물을 깎는 등 신경을 많이 썼다는 박씨는 공간구성에 애로가 많았지만 새로운 이미지의 불상조성이란 제작하는 즐거움도 있다고 말한다.

이번에 또다시 호미든 불상을 조성하기 위해 정토원에 4개월간 기거하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사상까지도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박씨는 “전통을 살리면서 시대정신을 담은 불교미술품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인조석을 재료로 해 40년만에 파발(破髮)된 것이 안타까웠다는 박씨는 이번 관음성상은 유리섬유와 FRP(강화플라스틱)를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개발한 혼합재료로 만들었으며 뒷백면이 지나도 거칠한 것이라고 말한다.